

추석 선물세트에도 탄소중립·동물권 등 ‘가치소비’ 열풍

작년 ‘그린워싱’ 논란 탈피 노력
이마트·현대·롯데 百 친환경 강화
보랭백 회수·플라스틱 포장 제거
KGC인삼공사, 프로모션 전개

올 추석 유통가 명절 선물세트에서는 ‘가치소비’가 눈에 띈다. 가치소비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소비를 뜻하는데, 탄소중립, 동물권 등을 강조한 상품들에 가치소비 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최근 대두된 가치소비 상품은 아직 유통업계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 탓에 지난해 가치소비 명절 선물세트를 출시한 일부 기업들은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다. 유통업계는 올해 그린워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마트는 이번 추석 가치소비 선물세트를 대폭 늘렸다. 특히 저탄소 과일과 축산물 위주 선물세트에서 벗어나 유기농 견과와 조미료 세트 등 품목을 다양화 했다. 대표 가치소비 상품인 저탄소 과일세트 물량도 작년 추석 대비 20% 늘렸다.



이마트의 자연주의 가치소비 세트.

이마트는 올해 ‘자연주의 유기농 참기름·참깨 세트’ 물량을 30% 늘리고, 유럽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급 전일염, 유럽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올리브유 등 신규 차별화 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유기농 가공세트는 2021년까지만 해도 큰 매출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해 추석과 올 설까지도 각각 전년 같은 명절 대비 30%대 높은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한우를 중심으로 가치소비 상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보인 ‘친환경 한우 선물세트’ 5종은 동물복지, 저탄소, 방목 사육, 무항생제 등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에



서 생산한 상품이다. 롯데백화점도 가치소비와 관련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보랭백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저탄소와 동물복지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했다. 이번 선물세트에서 눈에 띄는 상품은 품종 개량을 통해 비육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이상 줄여 탄소량 또한 65% 절감한 ‘저탄소 한우 GIFT’다. 경남 산청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목장에서 자란 ‘동물 복지 한우 GIFT’도 내놓는다.

선물세트 배송을 위해 활용한 보랭백 회수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회수한 보랭백과 봄 시즌 사용한 현수막으로 제작한 파우치와 피크닉 매트, 피크닉 보



/이마트

틀백을 감사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식품업계도 가치소비를 고려해 플라스틱 포장을 제거한 선물세트와 동물복지 제품 등 다양하게 선보인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선물세트 포장재에서 플라스틱을 전면 없앤 캔햄 선물세트인 ‘ECO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ECO 선물세트’는 플라스틱 트레이와 캔햄의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FSC(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종이와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인쇄한 케이스를 사용했다.

SPC삼립은 웰메이드 델리미트 브랜드 ‘그릭슈바인’에서 선물세트 10종

을 출시했다. 또한 최근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 원료 및 친환경 패키지 등을 확대 적용했다.

KGC인삼공사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컨셉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10월 1일까지 ‘올 추석 힘이 되는 선물’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19종의 다보록 선물세트를 비롯해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홍천옹’ ‘천녹’ ‘황진단’ ‘홍이장군’ ‘아이패스’ 등의 인기제품에 대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복지 원료,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한 선물세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정성을 담아 준비한 추석 선물로 가까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2026년까지 1260억 투자해 DP공장 증설

(완제의약품)



연간 800만 바이알 생산 가능 전망
완제의약품 공급 안정·원가 절감 기대

셀트리온이 1200억원을 투자해 송도 캠퍼스 내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증설한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800만 바이알 생산이 가능한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늘어나는 매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도 캠퍼스 내 제1공장 옆에 신규 DP공장 증설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2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해당 공장은 이미 설계에 들어간 상태로 2026년 초 완공해 그해 연말까지 밸리데이션을 거친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체제

에 돌입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해당 DP공장이 증설되면 DP생산의 내재화 비율을 늘려 매출 증대에 따른 제품 공급 안정성과 원가 절감효과를 빠르게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 DP공장은 최신 공정 적용으로 기존 DP공장 대비 파트별 생산 인원을 약 20% 축소해도 생산량은 약 1.8배 향상돼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생산비용 및 인원 절감에 따른 원가 절감효과는 상업생산이 본격화될 때 시화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DP공장이 가동되면 현재 위탁생산(CMO)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별 단가 대비 약 30%의 비용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가경쟁력은 고스란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공격적인 해외 입찰시장 참여나 미국, 유럽 외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 증

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기존 2공장 생산라인과 함께 품목별 집중 생산체계가 갖춰져 생산품목 전환(Changeover) 최소화 등에 따른 생산 효율성 향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품 품목별로 DP생산라인을 분산해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총 22개의 제품을 선보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DP공장 증설은 생산능력 내재화를 통해 생산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후속 파이프라인 제품을 포함한 제품 수요 증대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매출 수요 증대가 꾸준히 유지될 경우 추가 DP공장 증설도 검토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재훈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유기성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달 31일 이대서울병원 내 보구녀관에서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로잔대회에 의료부스 등 지원

한국로잔과 ‘제4차 로잔대회’ 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달 31일 이대서울병원 내 보구녀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로잔과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화의료원은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준비 및 대회 기간에 의료 부스를 지원하며 의료선교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게 된다.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약 3000~5000명의 다국적 크리스천이 참여하는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로잔대회 유기성 한국준비위원장은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화의료원이 이번 로잔대회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의료원이 대회를 통해 세계 선교에 더욱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적 돌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보령, 세계 최초 당뇨복합제 ‘트루버디’ 품목허가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결합
다른 기전 혈당 강하로 추가 효과 기대

보령이 지난 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계 최초 조합의 당뇨복합제인 ‘트루버디’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트루버디는 당뇨 치료제 가운데 SG LT-2 억제제 계열의 다파글리플로진 성분과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의 피오글리타존을 결합한 개량신약이다. 두 성분이 조합을 이루는 복합제 허가는 이번이 첫 사례다.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리타존은

전체 당뇨병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에 쓰이는 약물로, ‘혈당 강하 효과’라는 공통점을 비롯해, 각 성분이 갖는 장점, 부작용 상쇄 효과를 통해 병용투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보령은 두 성분의 이상적 조합에 착안해 ‘진정한(True) 동반자(Buddy)’라는 의미에서 ‘트루버디(Trubuddy)’로 제품명을 정했다.

두 성분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 강하 측면에서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파글리플로진은 제2형 당뇨를 유발하는

8가지 인자가운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장애’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증가’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 감소’를 개선하는 반면, 피오글리타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장애’ ‘간에서 포도당 생성 증가’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 감소’ ‘지방조직에서 포도당 흡수 감소’를 개선하기 때문에 두 성분 조합 시 혈당 강하에 더 효과적이다.

/이세경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동아오츠카, ‘컨피던스’ 디자인 리뉴얼

젊고 귀여운 느낌... MZ세대에 어필
동아오츠카는 비타민음료 컨피던스(사진)의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1995년 출시된 컨피던스는 각종 영양성분에 산뜻한 과일 맛까지 갖춘 무카페인 비타민 밸런스 음료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비타민 속성을 강조할 수 있는 노란색

은 유지하면서 고유의 병모양을 살린 캐릭터를 활용했다. 젊고 귀여운 느낌을 살려 MZ세대 고객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비타민 5종과 아미노산 3종, 그리고 전해질 상태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컨피던스를 통해 일상 속 활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